

한문고전 번역 및 표점에 있어 현토 활용의 문제

— ‘한대’와 ‘(이)어늘’을 중심으로 —

이 규 필*

<目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현토와 표점의 관계 |
| II. 현토 연구의 필요성 제언 | V. 맺는 말 |
| III. 현토와 번역의 관계 | |

<국문 초록>

본고는 번역과 표점에 현토가 과연 유용한가를 논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그를 위해 먼저 현토의 성격과 기능을 정리하였고, 연구 현황을 통해 과제를 진단하였다. 그 과정에서 현토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기초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발견했고, 그와 관련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을 절감했다.

현토의 의미와 용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검증하기 위해 빈도수가 많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卍 ‘~한대’와 ‘~(이)어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가 이 두 토는 의미와 용법이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 나름의 일관된 규칙이 있었고, 그 규칙은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 卍들이 지닌 규칙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반영한다면 한문고전 번역과 표점의 수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이 예측되었다.

이에 따라 ‘~하니’, ‘~하여’, ‘~하고’ 등 다른 현토들도 용례를 조사하여 정리하면 그것이 구어적 관습에서 혼용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보를 담고 일

정한 규칙 아래 쓰였다는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되었다.

이러 현토가 한문고전 번역과 표점의 수준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은 탐지되었지만, 낮은 한문 문장을 대상으로 그 현토를 정확히 알 수 있는 학자가 많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였다. 그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현토 교육의 필요성을 또한 아울러 제기하였는데, 이 지점에서 정확한 현토 교육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현토 연구와 정리의 필요성을 다시 절감하였다.

【주제어】 번역, 표점, 현토의 의미와 용법, 현토 교육, ‘~한대’와 ‘~(이)어늘’

I. 들어가는 말

근대 이전까지 한문에서는 띄어쓰기나 쉼표, 마침표 등에 대한 개념이 없었다. 한문은 기록 방식의 관습상 애초부터 정보를 잘못 전달하거나 오독할 소지를 얼마간 안고 있었다. 따라서 한문 문장의 호흡을 정확히 파악하여 끊는 것, 즉 우리가 文理라고 말하는 것은 중국에서도 일찍부터 대단히 중요하고 어렵게 생각하였다. 한문에서 문장의 호흡을 정확히 파악하여 끊어 읽는 것을 句讀라고 한다. 句는 완결된 문장의 단위를 의미하고, 讀는 문장 내 호흡의 쉼을 의미한다.¹⁾

문리를 익혀 句讀를 정확히 떼는 것이 중국에 있어서도 고도의 학습과 훈련을 요하는 일이었다면, 더구나 타국의 문자와 문장 체계를 차용해 써야 하는 우리의 경우는 그 어려움이 어땠겠는가. 지난한 과정을 통해 파악한 한문문장의 句讀와 意味를 어떤 방식으로든 보존하고 전수해야 했다. 그 결과물이 懸吐이다. 薛聰이 방언으로 九經을 풀이했다는 것도 대체로 經文에 현토를 한 것과 비슷한 작업일 것으로 학계에서는

1) 句讀는 漢나라 何休의 『春秋公羊傳解詁』와 唐나라 韓愈의 「師說」에 그 말이 보인다. (이상하, 「한문학습 및 번역에 있어서 현토의 문제」, 『민족문화』 29, 한국고전번역원, 2006, p.51. 참조.) 『韻會』에서는 “文은 끊기지만 意는 끊기지 않는 것을 讀, 文과 意가 모두 끊기는 것을 句[文斷而意不斷爲讀 文意俱斷爲句]”라고 정의하였다.

* 성균관대학교 대동문화연구원 / gdfcel@hanmail.net

추정한다. 이렇게 본다면 懸吐는 구두의 확정과 의미의 해석이라는 두 가지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중 의미 해석은 번역과, 구두 확정은 표점과 연결하여 논할 수 있겠다.

한글 창제 이후 儒佛의 경서 諺解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럼에도 현토는 여전히 중요한 지위를 유지하였다. 현토에는 중요한 성격과 기능이 있기 때문이다. 구두의 합의와 확정을 통해 경문을 번역한 결과가 諺解이다. 하지만 諺解는 經文의 의미를 명확히 보여줄 수 있을 뿐 원문의 句讀와 문법 구조를 보여주지는 못한다. 懸吐는 한문을 빌려 쓰는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때 원문의 문법과 호흡을 한 눈에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근대 이후로도 학계는 현토의 가치와 유용성에 대해 진작부터 주목하여 강조해왔다. 그러나 주로 현토의 기능적 측면에 한정하여 활용에만 주목하여왔고, 그마저도 깊이 논의 되지 못한 실정이다. 본고 역시 ‘번역 및 표점에 있어 현토 활용의 문제’를 다루고 있으므로, 여전히 현토 연구의 본령을 파고드는 논문이 아니라는 한계를 태생적으로 지니고 있다. 다만, 접근 전략을 다소 바꾸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과연 활용이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로 접근하고자 한다. 활용 방법과 효과는 근본적 물음의 끝에서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II장에서는 우선 현토의 성격과 기능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연구사적 검토를 통해 현토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진단하고자 한다. III장과 IV장에서는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번역과 교감표점에 있어 현토의 유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II. 현토 연구의 필요성 제언

1. 현토의 성격과 기능

이제까지의 현토 연구로 인해 현토의 정의, 현토 표기의 원리는 대체

로 규명되었다. 다만 현토의 성격과 기능은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 산발적으로 언급되었기에 간단하나마 전체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차적 성격: 懸吐를 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이다.

첫째, 현토는 한문문장의 句와 讀를 표시한다. 한문에서는 구두의 중요성과 난해함 때문에 일찍부터 문장의 시작, 쉼, 마침을 표시하는 글자를 만들어 사용해왔다. 이른바 虛辭라고 하는 것이다. 起頭辭 夫·惟·竊, 접속사 而·或·然·則, 조사 以·於·于·者, 終止辭 也·矣·乎·哉 등이다. 가장 먼저 이것에 바탕하여 한문 문장을 분석하여 호흡을 끊고 의미를 해석한다. 이어서 서술어와 관형어 등 實辭의 성격과 역할을 고려하여 문장의 구절을 보다 정치하게 분절하여, 句讀가 떨어지는 곳마다 우리말 토씨를 표시한다. 따라서 현토한 곳은 대체로 원문의 句讀 자리와 일치한다.

둘째, 현토는 한문문장의 문법적 구조와 형태를 표시한다. 한문은 우리말과 문법구조와 문장성분 배열이 판이하다. 현토는 한문의 고유한 문법적 장치를 우리 어법으로 명확히 표시해주어, 실사의 쓰임새와 기능, 虛辭가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알려준다. 또 현토는 인용문, 가정문, 의문문 등 文型을 분명히 표시한다.

* 예시1)

- a) 君子는 不以紺緗로 飾하며 紅紫로 不以爲褻服이라시디(鄉黨-6)
- b) 子張이 問十世를 可知也 닛가(爲政-23)
- c) 或謂孔子曰 子는 奚不爲政이시니 잇고(爲政-21)

a)에 달린 토 ‘~로’는 허사 ‘以’가 ‘~을 가지고’라는 도구격조사로 쓰였으며, ‘紺緗’와 ‘紅紫’ 두 곳에 걸린다는 것을 보여준다. b)에 달린 토 ‘~잇가’는 이 문장에 의문사가 없고 또 평서형 종결사 ‘也’로 끝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이 의문형임을 보여준다. c)에 달린 토 ‘~잇고’는 의문형 종결사가 비

록 없다 하더라도 앞에 놓인 의문사 ‘奚’의 의미를 반영하여 이 문장이 의문형임을 보여준다. 특히 ‘잇가’는 원문에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고, ‘잇고’는 원문에 의문사가 있는 의문문이라는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현토만으로도 文型은 물론이고 원문의 정보까지 알려준다.

셋째, 현토는 한문 문장에 드러나지 않는 의미를 보충하여 표시한다. 특히 經書의 경우가 그렇다. 우리나라의 경우 經文의 해석은 朱子의 集注를 바탕으로 한 것인데, 원문만 보면 드러나지 않는 의미에 대해 집주의 견해를 현토에 반영하기도 한다.

* 예시2)

其所厚者薄이오 而其所薄者厚하리 未之有也니라

그 후홀 바에 박하고 그 박홀 바에 후하리 잇디 아니 하나라

원문으로 보자면 ‘마음을 후하게 써야 할 곳에 박하게 하고도 박하게 써야 할 곳에 후하게 쓸 **이치는 없다.**’ 라고 번역해도 무방하다. 그러나 현토는 ‘**사랄**’이라고 새겨야 함을 분명히 표시하고 있다. ‘하리’는 ‘**할 이**’의 **준말**이다.

2차적 성격: 현토를 한 뒤 얻는 효과이다.

첫째, 文型과 의미 파악이 용이하다. 전술하였듯이 현토가 된 곳은 자연히 句讀의 자리에 해당되고, 또한 현토만 보더라도 문형-가정형인지, 의문형인지, 반어형인지를 알 수 있다. 순접과 역접, 비교와 강조 등 문장의 기본 형태 전반을 현토만으로 간단히 파악할 수 있으며, 복문의 경우 현토의 역할은 더더욱 빛을 발한다. 현토를 통해 구두가 드러나고, 문장의 기본 형태 및 구절과 구절 사이의 관계가 드러나므로, 우리나라 사람은 현토된 한문문장을 보면 그렇지 않은 문장을 볼 때보다 한결 쉽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한문문장 학습과 교육에 효과가 있다. 현토는 우리나라 사람에게 한문문장을 한결 친숙하게 만들어준다. 타국 언어에 대한 이질감을

한결 덜어주고, 심리적 부담감을 줄여준다. 이 때문에 처음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한문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해 주며, 교수자에게는 한문문법을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편이 된다.

과생적 성격: 현토가 현재적 시점에서 갖는 연구자료로서의 의미이다.

첫째, 해당 문장에 대한 앞 시대 학자들의 해석을 알 수 있다. 문장의 문법적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였으며, 그 의미를 무엇으로 파악하여 사용하였는지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한문은 같은 문장일지라도 하더라도 학파나 학자에 따라 구두를 다르게 떼고 의미를 다르게 보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다행히도 懸吐가 해당 문장에 남아 있으면 당시 학자들 간의 견해를 명확히 볼 수 있다. 당시 보편적으로 합의한 해석은 무엇이며, 그에 비해 특정 학자가 주장하는 해석은 무엇인지가 명확해진다. 나아가 언해가 되지 않은 문헌으로 그 범위를 확장해보면, 해당 문장에 대한 합의된 해석이 남아있지 않으므로 특정 문장에 대한 특정 학자의 견해는 오직 그가 남겨놓은 현토를 통해 볼 수 있다.²⁾

둘째, 우리말 토씨와 어미 연구의 자료로서의 성격을 들 수 있다. 국어학자들에게는 우리말의 조사나 어말어미 변천과정 등의 연구에 있어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2. 현토 연구의 성과와 과제

현토는 우리 민족의 표기 문화유산이요 한문 학습과 교육에서 오늘날

2) 참고로, 韓末의 학자 香山 李晚燾는 『예기』에 현토를 달면서 “문덕의 교화가 밝아지는 것도 이를 통해서이고, 문덕의 교화가 밝아지지 않는 것도 또한 이를 통해서이다.”라고 하여 현토가 가지는 학술과 문화상의 의미를 크게 부각하였고, “뒷날 나의 일천한 학문 수준을 알게 해줄 것도 바로 이것이고, 내가 조금 식견이 있는 자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게 해 줄 것도 바로 이것이라.” 하여 자신의 학문적 조예를 모두 현토에 담았음을 고백한 일이 있다. (이만도, 『향산집』 별집4 「禮記懸讀後識」. 참조)

까지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 때문에 학계에서는 진작부터 현토에 대해 주목해왔다. 대체로 세 가지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가장 먼저 국문학계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주로 口訣의 정의와 기원, 현토의 차자표기 방식과 음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다음으로는 한문교육계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과교육의 방법론적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가 뒤를 이었다. 현토를 통해 한문을 익히고 전수해 온 전통적 경험으로 인해 그 효용성이 이미 충분히 검증된 터이므로, 이것을 오늘날 한문교육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주로 초점을 모아 연구를 진행하였다.

셋째 번역과 표점에의 활용이라는 현실적 요구로 인한 연구이다. 2004년 심경호가 조선 전기 경서의 현토와 언해 문헌을 치밀하게 추적하여 수집·정리하였다. 이어 2006년 이상하가 한문학습과 번역 및 표점에 있어서 현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이 발표들을 기점으로 현토는 다시금 학계의 관심 안으로 들어왔다. 두 논문은 현토 연구사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심경호의 논의는 현토를 원문 가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한 것이고, 이상하의 논의는 현대의 번역과 표점 가공에 있어 현토의 역할과 중요성을 조명한 것이기 때문이다. 고전의 번역과 원문 정리는 오늘 학계의 두 화두를 현토를 통해 진단한 것이다.

최식은 2008년 任圭直(1811-1853)의 초학교재 『句讀解法』을 발굴, 학계에 소개하였다. 최식은 현토의 역사와 특성을 개괄적으로 서술한 다음, 『구두해법』의 범례와 본문의 특징 및 성과를 설명하였다. 이 연구에 이어 최식은 2010년 李森煥(1729-1813)의 『句讀指南』, 任圭直의 『句讀解法』, 朴文鑑(1846-1918)의 『吏讀解』를 비교 고찰하여 학계에 발표하였다. 대체로 『구두해법』을 중심으로 다른 자료들을 비교 고찰하는 내용이었다. 최식이 소개한 『구두해법』은 주목을 요하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 첫째, 현토를 조사와 접속사 등 품사의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논하였다. 둘째, 조사 성격의 현토에 대해 서술어에 걸리는 토와 명사절두에 붙는 토를 구분하여 논하였다.(‘~하고’와 ‘~이고’, ‘~하니’와 ‘~이

니’의 차이를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셋째, 접속사 성격의 현토에 대해 문맥에 따라 의미를 구분하여 논하였다.(순접[~하여]과 병렬[~하고, ~하며]의 현토를 설명하였다.) 넷째, 현토의 음운학적 법칙을 주목하여 논하였다.(토를 다는 방식이 앞 글자 한자음이 중성으로 끝나는지 중성으로 끝나는지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것, 즉 ‘이’와 ‘ㅣ’의 차이를 설명하였다.) 다섯째, 존칭 또는 시제와 관련한 ‘어말어미’를 주목하여 논하였다. 여섯째 허사의 문법적 기능과 현토의 긴밀한 연관성을 지적하고, 그 의미를 논하였다.

『구두해법』을 비롯한 일련의 자료들은 매우 중요하다. 19세기 학자들의 현토에 대한 견해를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하다. 단순히 현토를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한문의 허사와 우리 현토 사이의 상관관계, 현토에서 우리말의 법칙, 곧 통사론, 음운론, 의미론 등 문법론 전반에 걸친 고민은 물론이고, 현토를 통한 한문 교육이라는 교육 방법론적 고민까지 아울러 담겨 있다. 때문에 오늘날의 시각에서도 매우 유용한 자료이며, 최식은 그러한 지점을 잘 조명하였다.

『구두해법』의 발굴은 무엇보다 오랜만에 국문학계의 현토 연구 관심을 환기시켰다. 윤용선은 『구두해법』에 실린 조선 후기의 구결과 관련한 법칙 설명을 국어학자의 입장에서 정리 분석하여, 그 성과와 함께 한계를 지적하였다. 대표적인 예로, 1차 정보를 담당하는 선어말어미나 조사에 대한 인식은 비교적 명료하게 인식하고 있는데 비해, 2차 정보를 담당하는 선어말어미나 조사에 대한 인식은 상대적으로 모호하다는 지적 등을 들 수 있다. 아울러 당시 구결 자료의 분석과 국어 구어 자료의 검토라는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구두해법』은 한문고전을 정리하고 번역하는 전문기관 관련자들에게도 매우 큰 관심을 끌었다. 이상하는 『구두해법』에서 확신을 얻어 2006년의 논의를 보강하여 현토의 의미를 더욱 논리적으로 분석하였고, 현토가 표점 가공에서도 여전히 매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

였다. 하지만 ‘~하니’와 ‘~한대’, ‘~이어늘’의 차이를 세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통용될 수 있지만 句讀를 나눌 때에는 문장을 끊는 정도는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서술한 것처럼, 때때로 용례의 수집과 비교에 따른 결과를 토대로 논증한 것이 아니라 다소 인상 비평적 성격의 진술이 없지 않다. 한편 박은희는 전통 현토와 표점의 차이, 그것이 번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기왕에 출판된 번역서에서 발췌하여 전통 현토의 단점과 한계를 지적하였다. 이상하와 박은희의 논의는 상반된 것이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확신의 근거를 모두 『구두해법』에서 찾고 있다.

정리하자면, 현토에 대한 연구는 주로 국어학계의 문법론 측면, 한문 교육계와 전문 연수기관의 교육 방법론적 측면, 한문고전 유관 분야의 번역과 원전 정리의 측면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학계의 문헌 소개 등으로 관심이 한층 고조되어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연구자들의 공통된 지적처럼, 전통시대에 누려왔던 현토의 위상을 감안한다면 현토 연구는 매우 부진한 편이다. 무엇보다 경서에 사용된 토의 數조차 집계되지 않았고, 시대별로 사라진 토나 용법에 변화를 보인 토가 조사되지 않았으며, 토의 의미에 대해 용례 集積을 통한 분석이 시도되지 않았다.³⁾ 이 때문에 이제는 의미와 용례를 도대체 짐작하기 어려운 토가 적지 않게 되었고, 쓰임을 정확히 알지 못하므로 자의적으로 혼용하거나 전혀 엉뚱하게 사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구두해법』에 대해서도 학계의 후속 연구가 요구된다. 먼저 『구두해법』이 해설한 현토의 의미와 용법을 검증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임규직

3) 이런 현재적 상황에서 이병혁의 연구는 매우 큰 기여를 하였다. 이병혁은 그의 논문 「전통 한문 교육: 한문 현토를 중심으로」(『한자한문교육』 6,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0.)에서 현토를 助詞와 語尾로 분류하여 상세히 정리해 놓았다. 다만, 이병혁이 정리해 놓은 현토가 ①어떤 문헌에서 집적한 현토인지 그 문헌적 전거가 분명치 않고, ②현토인지 옛 우리말의 어미인지 경계가 모호한 토씨들이 다수 있으며, ③시대의 변천에 따라 사라진 토가 분류되지 않았고, ④의미와 용법의 정확한 분석에 따른 분류가 아니라 는 점에 다소 아쉬움이 있다. 역시 후속 연구와 정리가 필요하다 하겠다.

의 견해에 오류나 미진함은 없는지, 특정 학파적 성격은 없는지 실제 용례 분석을 통한 검증이 요구된다. 이 과정에서 16세기와 19세기 현토 간의 용례 변화 또는 어감 변화의 실제 모습들이 밝혀지리라 생각된다. 아울러 16세기에 비해 19세기에 통용되던 현토가 얼마만큼 줄어들었는지 조사할 필요도 있다. 현토의 보수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변화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현토 연구가 이토록 부진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국문학계에서는 옛 우리말의 助詞와 語尾 등 현토의 형태적 요소에만 주로 관심을 가졌다. 그나마 옛 우리말의 助詞와 語尾를 연구할 수 있는 자료는 풍부하므로 經書의 懸吐는 그저 참고자료로 취급되어 본격 연구 대상으로써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한문학계에서는 관습적인 익숙함 때문에 토의 용법을 잘 안다고 생각하여, 현토가 지닌 한문 문법과의 관련성 또는 용법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활용에만 관심을 두어왔다.

연구를 건너뛰고 활용 방안만 모색한다면 아이러니하게도 현토 무용론 또는 현토가 한문고전 번역과 정리에 기여할 수 없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꼴이 될 수 있다. 다음은 그러한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잘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孟子有云호대 今之諸侯(|)無大相過者는 以其皆好臣其所教오 而不好臣其所愛 教라하니 今之時(|)與孟子之時로 又加遠矣①라 皆好其聞命而奔走者오 不好其 直己而行道者하나니 聞命而奔走者는 好利者也오 直己而行道者난 好義者也니 未有好利而愛其君者며 未有好義而忘其君者②라

『맹자』에 이르기를 “지금의 제후들이 크게 서로 나은 자가 없는 것은 모두 자기가 가르칠 사람을 신하로 삼기를 좋아하고 자기가 가르침을 받을 사람을 신하로 삼기를 좋아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하셨으니, 지금의 때는 맹자의 때와 더욱더 **거리가 멀니다. 그리하여** 모두 명령을 듣고 분주히 달려가는 사람을 좋아하고, 자기 몸을 끈게 하여 도를 행하는 자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명을 듣고 분주히 달려가는 자는 **리를 좋아하는 자**이고, 자기 몸을 끈게 하여 도를 행

하는 자는 義를 좋아하는 자이니, 이를 좋아하고서 그 군주를 사랑하는 자는 있지 않으며, 의를 좋아하고서 그 군주를 잇는 자는 있지 않습니다.(성백효, 『고문진보』, p.148.)

韓愈의 「上張僕射書」 부분이다. 문제가 된 토는 ‘~라’이다. 『구두해법』에는 연결어미 ‘~라’와 종결어미 ‘~라’를 굳이 구분하지 않았다. 하지만 ‘~라’ 토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얼마간 지니고 있는 모호한 토이다. ‘~라’ 토의 이러한 특성은 단구 위주의 經文일 때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작품 단위의 문장 속에서는 의미를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斷辭 ‘也’의 아래에 쓰일 때엔 더욱 그러하다.

위의 예문에는 ‘~라’ 토가 두 번 달렸는데, ①은 연결어미로 사용된 예이고, ②는 종결어미로 사용된 예이다. 그런데 번역과정에서 ①을 종결어미로 처리하였고, 글의 흐름을 잇기 위해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를 첨가하였다. 이는 문장을 간결하게 정리하는 과정에서 생긴 단순 착오이다. 이 부분이 현토의 효용에 회의적인 연구자의 눈에 걸렸다. 아래에 해당 부분의 해설을 인용하였다.

그런데 번역에서는 **현토대로 종결어미로 번역하였다. 그 결과 맹자 시대와 그 당시의 대비라는 구도가 깨어졌고**, 앞 문장의 꼬리와 뒷 문장의 머리가 붙게 되었다. 번역으로 보면 별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문장 구조상으로는 아주 다른 것이 되었다.⁴⁾

운문 과정에서 ①의 의미를 놓쳐 종결어미로 처리한 것은 번역과 운문 과정에서의 사소한 실수이다. 따라서 그 점만 간단하게 지적하면 된다. 그런데 이를 지적하는 연구자 역시 ‘~라’ 토의 특성을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보다 심각한 오류를 범하였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현토에 현토를 더하는 방식은 번다할뿐더러, (중략) 또 그 연결어미를 종결어

미로 바꾸어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허리를 끊는 잘못도 일어나기 쉽다.”⁵⁾고 결론을 내려 현토의 의미와 효용성을 거의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방향으로 독자를 유도하고 있다. ‘~라’ 토 용법에 대한 연구자의 몰이해를 현토의 효용성에 책임 전가한 것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오류를 쉽사리 발견하지 못하고, 현토무용론에 고개를 끄덕인다.

현토를 활용할 것인가, 폐기할 것인가, 또는 선별적으로 활용하거나 현대 어법에 맞는 현토로 바꿀 것인가? 등의 논의는 현토 연구가 일정한 성과를 낸 다음에 해야 할 문제이다. 다만 본고의 집필 목적이 있으므로, 번역과 표점교감에서의 현토 활용 가능성을 구체적 사례 위에 모색해보려 한다.

III. 현토와 번역의 관계

1. 문제 제기

현토를 번역에 활용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떠한 것인가? 이는 현토를 낯선 문장에 능숙히 달 수 있는 수준이 전제된 뒤에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담론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토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현토에 대해 정확히 잘 알고 있거나 한 것일까? 또 낯선 문장에 현토를 능숙히 달 수 있는 수준에 와 있는 것일까?

현토의 전승이 지면으로만 남은 채 정리조차 되지 않은 오늘에 와서는 특정 토의 의미를 저마다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우리가 낯선 문장에 토를 달 수 없는 이유는 여기에서 기인한다. 따라서 무엇보다 현토의 용례를 하나하나 집적하여 문법적 기능과 의미를 명확히 밝히는 작업부터 요청된다.

한문문장의 疑問辭와 호응하거나 虛辭의 기능을 나타내주는 토는 『구

4) 박은희, 「한문번역의 측면에서 바라본 표점과 현토의 차이 : 고리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39, 한국고전번역원, 2012.

5) 박은희, 앞의 논문.

두해법』에도 용법과 의미가 잘 설명되어 있거니와 현토를 통해 한문을 배운 사람이면 어렵지 않게 이해할 뿐 아니라 크게 틀리지 않고 달 수 있는 토이다. 하지만 조금 어려운 것이 있다. ‘~하니’와 ‘~하나니’, ‘~할새’와 ‘~일새’, ‘~잇가’와 ‘~잇고’의 차이는 초급자 수준을 마친 사람에게 물어도 선뜻 대답하지 못하는 토이다.

이보다 더 어려운 토가 있다. 구두의 자리에 달린 토들이다. 너무나도 익숙한, 그래서 너무나 쉬이 보아 왔던 ‘~하여’, ‘~하니’, ‘~한대’, ‘~하고’, ‘~하며’, ‘~라’, ‘~이어늘’, ‘~로대’, ‘~나’ 등과 같은 연결어미 현토이다. 앞에 예거한 현토들은 오늘 우리말의 어미에도 사용되고 있어 이질감이 거의 없는데다, 범상하게 보아서는 오늘날 우리가 늘 쓰는 의미와 크게 다르지 않게 느껴져 무심코 넘어간다. 여기에서 오늘날 한문 연구자와 현토와의 첫 단추가 잘못 끼워진다.

‘~한대’와 ‘~이어늘’과 ‘~하니’를 예로 들어보자. 『구두해법』은 이들 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무릇 다른 사람의 일 및 다른 뜻으로 이어질 경우 ‘~하니’, ‘~한대’, ‘~이어늘’ ... ○무릇 다른 사람의 일에서 ‘~이어늘’은 대개 위에 있고, ‘~하니’, ‘~한대’로 그 문세에 따라 이어받는다. 이 세 가지 토가 다 있고, 또 그 아래에 다른 사람의 일이 있으면 ‘~이라’로 약간 끊는 것이 좋다. ○무릇 구두에 있어 한 뜻으로 서로 이어지는 경우와 待對의 경우에는 토가 중첩해도 무방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의 일과 斷辭의 아래에는 모두 중첩해서는 안 되니, ‘~이니’, ‘~이라’를 서로 섞어서 읽어야 한다. ○... 만약 위 아래 글에 연이어 있으면 이 세 가지 토를 변통하여 읽어야 한다. 나머지는 대체로 이와 같다.

『구두해법』의 설명에 의하면 ‘~한대’, ‘~이어늘’, ‘~하니’는 주어가 바뀔 때와 사건(혹은 행위)이 바뀔 때 쓰는 것으로, 서로 간에 용법상의 차이는 없으며 서로 혼용할 수 있는 토이다. 그렇다면 이들 토의 사이에 의미상 용법상의 차이가 정말로 없는 것일까? 모종의 규칙이 없다는 말인가? 문세에 따라 적당히 섞어서 읽는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口語의 관

습이나 직관에 의한 혼용일 뿐인가?

이것을 쉽고 명쾌하게 설명하기란 참으로 어렵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본 절에서는 ‘~한대’와 ‘~이어늘’ 두 토를 중심으로 번역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의미와 용법을 살펴보고자 한다.⁶⁾

2. 현토와 번역의 관계 시탐: ‘~한대’와 ‘~(이)어늘’을 중심으로

1) ‘~한대’

먼저 거론할 때는 ‘~한대’이다. 언뜻 보면 의미를 알 것 같지만, 다시 보면 모호해 보이는 현토이다. ‘~하대’의 과거형처럼 보이기도 하고, 전환 접속사 ‘그런데’의 의미를 지니는 연결어미처럼 보이기도 한다.

孟懿子問孝한대 子曰 無違니라(爲政-5)

孟武伯問孝한대 子曰 父母는 唯其疾之憂시니라(爲政-6)

위의 두 예문은 ‘~한대’의 토를 ‘~하였는데’라고 번역하여도 크게 어색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나 의미가 명쾌하게 다가오지도 않는다. 그렇다면 같은 자리에 ‘~하니’ 토로 대치해보자. 큰 차이가 느껴지는가? 여전히 어색하지 않다. 번역도 ‘~하니’라고 그대로 적용시켜도 크게 무리가 없어, 현토 역시 ‘~하니’가 더 잘 맞는 듯한 느낌마저 든다.

위의 예문을 보면 ‘~한대’는 오늘날의 ‘~(하)자’ 혹은 ‘~(하)니까’의 의미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여기에 ‘~하니’를 넣어도 무방한가? 규칙 없이 혼용하던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한대’ 토는 어떤 것일까?

예문처럼 短文일 경우 둘을 명쾌하게 구분하기가 용이하지 않지만, 용례를 좀 더 살펴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한대’의 토는 고유의 자

6) 경서 언해의 현토를 기준으로 하되 『논어』와 『맹자』 등 사서의 현토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언해 현토의 경우 특히 교정청언해를 중심으로 하고자 한다.

리와 의미가 있다. ‘~한대’는 發話狀況의 전제, 또는 배경을 제시하는 의미의 현토이다. 따라서 언어학적 형태로는 연결어미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대’라는 토가 달린 하나의 문단이 있을 경우, ‘~한대’ 앞의 문장은 그 뒤에 몇 개의 문장이 있는지와 상관없이 해당 문단이 끝날 때까지 이후 모든 문장의 배경이 된다. 결코 ‘~한대’의 바로 다음 문장과 연결이 아니다. 때문에 비록 연결어미처럼 보이지만, 오늘날 개념으로서는 하나의 문장이 끝나는 자리이다.

①子入大廟하사 每事를 問하신대 ②或曰 孰謂鄆人之子를 知禮乎오 入大廟하여 每事를 問이온여 ③子聞之하시고 曰是禮也니라(八佾-15)

a) 공자께서 태묘에 들어가시어 매사를 **물으시자** 혹자가 “누가 추인의 아들이 예를 안다고 하는가? 태묘에 들어가 매사를 묻는구나?” 라고 **하였다**. 공자가 이 말을 듣고 “이것이 예이다.” 하였다.

b) 공자께서는 태묘에 들어가시어 매사를 물으셨다. **이를 두고** 혹자가 “누가 추인의 아들이 예를 안다고 하는가? 태묘에 들어가 매사를 묻는구나?” **라고 하자**, 공자가 이 말을 듣고 “이것이 예이다.” 하였다.

위의 예문은 세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신대’는 ‘~한대’의 높임 말이다. ‘~한대’ 앞의 문장 ①은 바로 다음 문장인 ‘或者’의 말 ②와 연결되는 것이 아니다. 사건 전개 구조로 보면 或者의 말인 ②와 공자의 말인 ③이 한 덩어리로 묶일 수 있고, ①은 그 대화의 배경적 상황으로써 ‘~한대’ 앞에 제시된 것이다. ②와 ③은 같은 공간 같은 시간에서 일어난 일일 수도 있고, 시간적인 간격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태묘에 들어가 매사를 물은 ①은 시간적 선후나 간격으로 따질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 뒤의 말들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공자의 평소 몸가짐이 이러했다는 것이다. 세 개의 한문 문장 자체에는 이러한 정보를 담은 문법적 요소가 없지만, 현토는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다.

따라서 예문을 번역할 때 자칫 a)처럼 ‘每事를 물으시니까(물으시자) 혹자가 ~라고 말하였다.’라고 하기 쉽지만, b)처럼 끊어주어야 한다. 예문의 경우를 誤譯 문제로 논할 성질은 아니다. 하지만 현토의 의미와 쓰임에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短文이 아니라 문장이 길고, 문맥이 비틀어질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한대’ 토의 의미를 번역에 정확히 반영해야 한다.

四書의 현토에서 이러한 성격의 자리에 ‘~하니’ 토를 단 경우는 없다. 말하자면 ‘~한대’와 ‘~하니’는 의미와 쓰임에 있어 엄격한 구분이 있었고, 피상적으로 상정해볼 수 있는 口語上的 慣習的 直觀的 혼용은 없었다.

2) ‘~(이)어늘’

‘~한대’와 성격이 가장 비슷한 토가 있다면 그것은 ‘~하니’가 아니라 ‘~(이)어늘’이다. 강조형은 ‘~커늘’이다. 이 현토는 오늘날 양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거늘’과 형태가 비슷하여 뜻마저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토를 달 때도 많은 사람들이 양보적 의미를 띠는 역접처럼 달고 있는 토이다. ‘~어늘’이 그러한 의미로도 쓰이지만 더 많은 경우는 꼭 그렇지 않다. 용법을 다소 다르게 이해하고 있는 대표적인 현토 중의 하나이다.

밖엔 봄빛이 완연하거늘 집안은 여전히 싸늘하다.
내가 그렇게 타일렀거늘 말을 듣지 않더니 봉변을 당했구나.
십 년이면 강산도 변하거늘 어찌 고향 산천인들 변하지 않겠는가?

- a) ①子見南子하신대 ②子路不說●이어늘 ③夫子矢之曰(雍也-26)
- b) ④顔淵死●커늘 ⑤子哭之慟하신대 ⑥從者曰 子慟矣샤소이다(先進-9)
- c) ⑦陽貨欲見孔子●어늘 ⑧孔子不見하신대 ⑨歸孔子豚●이어늘 ⑩孔子時其亡(無)也而往拜之러시니 遇諸塗하시다(陽貨-1)

위의 세 문장은 사전에서 ‘~거늘’의 연결어미가 쓰인 예문을 발췌하여 오늘날의 용례를 보인 것이고, 아래 세 문장은 한문에 ‘~어늘’ 토가 달린 곳을 발췌하여 용례를 보인 것이다.

예문에서 보듯이 오늘날의 연결어미 ‘~거늘’의 의미와 현토에서 쓰인 ‘~어늘’은 조금 다르다. 양보적 의미를 띠는 역접처럼 사용될 때도 있지만, 대체로 ‘~어늘’은 ‘~한대’처럼 상황 제시나 한정 의미로 쓰인 현토이다. 용법 역시 ‘~한대’와 거의 흡사하게 쓰인다. 이 때문에 위의 예문에서 ‘어늘’과 ‘한대’ 토를 가지고 자리를 바꾸어 단다 해도 그다지 어색함을 느끼기 어렵다. 그만큼 의미와 용법이 상통한다. 다만 ‘~한대’는 ‘~하자’라는 연결어미로 번역할 수 없지만, ‘~어늘’의 경우는 그렇게 번역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번역하면 의미가 한층 분명하게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a)의 번역 : 공자가 남자를 만났다. 자료가 언짢아 하자~

b)의 번역 : 안연이 죽자 공자께서 통곡하셨다. 제자들이 “선생님께서 너무 비통해 하십니다.” 하였다.

c)의 번역 : 양화가 공자를 만나고 싶어 하엿으나 공자가 만나 주지 않았다. 양화가 돼지를 공자에게 보내자~

네 번의 ‘~어늘’에서 양보적 의미를 띠는 역접으로 사용된 예는 단 한 번이고, 나머지는 모두 긴밀하게 호응하는 앞뒤의 문장을 한정 의미로 연결해주는 용법으로 쓰였다. 양보적 의미의 역접으로 사용된 ㉓도 ‘~어늘’ 앞뒤의 두 문장이 긴밀하게 호응하며 연결되어 있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어늘’은 ‘~한대’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 용례를 가지고 말해보자면 ‘~이어늘’은 ‘~한대’와 의미는 비슷하지만 문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다르다. ‘~어늘’은 ‘~한대’ 보다 작은 상황의 한정과 배경을 제시하는데 주로 쓰이며, 조용하는 앞뒤 문장의 긴밀한 연결에 잘 사

용된다. 요컨대 ‘~어늘’은 그 현토 자리 바로 앞뒤의 문장과 긴밀히 호응하고, ‘~한대’는 이 현토를 중심으로 문단의 전체 호흡이 나뉘는 것이다.

위의 예문으로 말하자면 a)에서는 ①이 하나의 문장으로 떨어지고, ②와 ③이 호응한다. b)에서는 ④와 ⑤가 호응하고, ⑥이 떨어진다. c)에서는 ‘하신대’를 기점으로 크게 나뉘고, ㉓을 통해 ⑦과 ⑧이 호응하고, ④를 통해 ⑨와 ⑩이 호응한다. 제시한 번역은 그 호흡을 반영한 것이다. ‘~한대’와 ‘~어늘’은 전혀 바꾸어 쓸 수 없는 관계는 아니지만, 둘의 구분도 대체로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정리하자면 ‘~한대’와 ‘~이어늘’은 주체가 바뀔 경우 사용한다는 점은 맞지만, 두 현토 역시 분명한 용법과 자리가 있어 상황에 따라 그때그때 편의적으로 호환하여 쓸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어늘’은 대개 위에 있고, ‘~하니’, ‘~한대’로 그 문세에 따라 이어받는다. 『구두해법』의 설명은 전통시대 한학자의 오랜 경험에서 우러난 언어적 직감에 따른 진술일 뿐 구체적 근거에 바탕한 합리적 해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현토의 의미와 용법을 명확히 알아야 하고, 그에 따라서 문장의 구두와 구조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럴 때 원문의 의미와 사건의 흐름이 한결 명확해진다. 그리고 이것을 익혀 낯선 문장에 대해서도 일관되게 적용시킬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번역에 있어 현토의 활용 가능성은 결코 적지 않을 것이다.

IV. 현토와 표점의 관계

1. 문제제기

한문고전에서 원문정리와 정본화 작업의 요청이 날로 커지고 있다. 그 방법은 물론 표점을 통한 가공이다. 오늘날의 표점 방식이야 근대 서

양 표점부호를 빌린 것이거나와 한문에서 표점부호 사용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어 상고시대부터 이미 있었다.⁷⁾

그렇다면 왜 표점작업이 필요한 것인가? 한문에는 띄어쓰기나 문장의 완결을 알려주는 표시가 없기 때문에 句讀의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일차적인 이유요, 목적이다. 인용 부분 표시라든가 문장의 구조 또는 허사의 문법적 기능을 보여주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이다. 한문은 태생적으로 句讀 구분이 힘든데다, 긴 역사에 걸친 언어변화까지 겹쳐 현대에 와서는 중국인들조차 표점 없이 古文을 읽는다는 것은 녹록치 않은 일이 되었다. 표점은 오늘에 와서는 그야말로 꼭 필요한 작업이 되었다.

그런데 한문의 句讀에서 문장의 쉽과 마침이 오늘날의 문장처럼 완전히 결정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가능하긴 한가? 문장의 쉽과 마침을 표시하기 위한 허사가 일찍부터 사용되기는 하였지만, 이 허사들이 또 반드시 문장의 쉽과 마침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된 것이 아님은 주지의 사실이다. 마찬가지로 한문의 句讀에서 많은 지점이 쉽과 마침에 합의가 쉽게 이루어지기도 어렵다.

현행 한문 표점 부호에서 休止의 성격을 갖는 부호는 반점(·), 쌍점(∴), 쌍반점(∴), 고리점(⊙) 넷이다. 이중 반점을 ‘쉽표’라고 하지 않고 ‘고리점’을 마침표라고 하지 않는 것은, 그것이 꼭 쌍점(∴)과 쌍반점(∴)이 있기 때문만은 아닌 듯하다. 쌍점과 쌍반점의 성격 역시 때에 따라 반점의 성격을 클 때가 있고, 고리점의 성격을 클 때가 있는 모호한 부호이다. 하지만 고리점이라고 하여 꼭 마침표라고 단정하거나 반점이라고 하여 반드시 쉽표라고 단정할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한문 자체에 내재해 있다. 그

7) 청나라 학자 章學誠은 “문장에 점을 찍는 방식은 漢왕조 이전 시기부터 있어왔다.”고 말한바 있다. 또 근래 고고학적 발굴에 따르면 문자 사이에 부호를 새겨 문장의 단락을 구분한 방법이 사용되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1965년 12월 산서성의 ‘侯馬晉國遺址’에서 출토된 춘추 말기의 ‘侯馬盟書’의 맹약문에는 47개의 구두 부호가 있다. 이것은 최근까지 발견된 춘추 시기의 자료 중 구두부호를 가장 많이 쓴 것이다.(管敏義, 『고급한문해석법』, 창작과 비평, 1994, pp.13-29.)

래서 다만, ‘休止의 성격에 강약이 있다.’는 정도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 a) 子曰：“道千乘之國：敬事而信，節用而愛人，使民以時。”(學而-5)(中華書局)
子曰：“道千乘之國，敬事而信，節用而愛人，使民以時。”(學而-5)(齊魯書社)
- b) 子曰：“父在，觀其志；父沒，觀其行；三年無改於父之道，可謂孝矣。”(學而-11)
子曰：“父在觀其志，父沒觀其行，三年無改於父之道，可謂孝矣。”(學而-11)
- c) 子曰：“吾與回言終日，不違如愚。退而省其私，亦足以發。回也不愚。”(爲政-9)
子曰：“吾與回言終日，不違，如愚。退而省其私，亦足以發，回也不愚。”(爲政-9)

위의 예문은 한문문장에 쉽과 마침이 완전히 정해질 수 없음을 보여주는 예이다. 문장의 구조를 어떻게 이해하고 보여줄 것인가에 대한 정리자의 의견이 쌍점, 쌍반점, 반점, 고리점으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나마 성격이 제일 분명한 고리점 역시 반드시 문장의 마침을 뜻하는 것이 아닐 수 있음을 시사하는 증거가 c)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비교적 짧은 예문의 구두에 대한 시각차가 이리하다. 길고 복잡한 문장은 말할 나위도 없다. 이는 한문 고유의 특징으로, 장점으로 작용하기도 하고 단점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특징 때문에 표점이라고 무조건 sentence 단위로 찍는 것은 아니다. 아니 애초에 그럴 수 없는 것인지 모른다.

이쯤 와서 조금 다른 질문 하나를 던진다. 현토를 원문정리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 볼 수는 없는 것인가? 이제까지의 논의는 대체로 현토를 번역의 한 형태, 또는 번역의 전단계의 어떤 형태로 이해해왔다. 현토를 주로 번역과 연결시켜 이해해온 것이다. 이는 현토가 우리말 토씨를 표기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으로는 아주 당연한 반응이고, 자연스러운 이해이며, 또한 현토가 만들어진 본연의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생각을 넓혀 현토를 토씨의 의미나 번역과 상관없이 원문 정리의 한 형태

로 보아도 불가능할 것은 없다는 생각이 든다.⁸⁾

현대 중국인은 옛 한문문장에 대해 이방인이다. 낯설고 어려운 고문을 이해하기 위해 표점 부호를 통해 구두를 표시하고, 인용 범위를 표시하고, 문장의 구조를 간결하게 정리하여 보인다. 옛날 우리나라 사람도 한문문장에 대해 이방인이었다. 낯설고 어려운 문장을 수용하고 전수하기 위해 현토를 가지고 구두를 표시하고, 인용범위를 표시하고, 문장의 구조를 간결하게 정리하여 보였다. 필요성과 목적에 있어 둘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누구에게 어떤 것이 더 편하고 익숙한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교착어의 언어 관습이 없는 중국인들에게는 문장부호가 더 편리하고, 교착어를 써온 우리에게는 현토가 좀 더 낯익게 여겨질 수 있다는 정도의 차이 뿐이다. 요컨대 표점과 현토는 어떤 면에서 필요성 인식과 목적에 공통분모가 없지 않다.

“孤立語인 한문은 현토가 되면서 膠着語인 우리말로 구조적인 변환을 겪는다.”는 요지의 주장도 있고, “한문은 본래 고립어로서 그 중요한 문법적 기제가 어순과 허사에 있는데, 구결이 달리면서 그러한 한문 고유의 문법 기제는 기능을 상실하고 오직 국어의 문법적 형식어인 구결만이 구문 형성을 위한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는 요지의 주장도 있다. 이 주장들이 과연 타당한가? 현토가 되어도 고전의 원문은 원형태로 보존되어 있다. 만약 원문이 구조적인 변환을 겪는다고 한다면 이는 표점가공에도 똑같이 적용될 문제이다. 구결이 달리면서 한문 고유의 문법 기제가 기능을 상실한다는 주장도 그것이 聲讀 또는 공문서에 달리는 吏讀文과 관련해서라면 논의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紙面에 添記된 현토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현토는 한문 고유의 문법 기제

8) 박종천은 표점을 ‘이해를 추구하는 출발언어 기반적’이라 설명하였고, 현토를 ‘번역을 지향하는 목표언어 지향적’이라고 설명하였다. 박종천의 견해에 매우 동의한다. 다만 현토에도 ‘이해를 추구하는 출발언어 기반적’ 성격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으며, 이 지점을 명확히 인지하여 활용한다면 현토가 표점가공에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박종천, 「표점과 현토(구결)의 비교 분석」, 『민족문화』 35, 한국고전번역원, 2010. 참조.)

를 우리식으로 표시해줄 뿐이다. 그것이 표점에 한문 문법 기제를 표시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현토를 원문정리의 한 형태로 볼 경우, 생각해야 할 문제가 있다. 연결어미와 종결어미에 대한 고정관념 조정이다. 한문의 구두에 쉼표와 완결이 완전히 확정될 수 없고, 이에 따라 구두에 해당하는 표점부호를 休止의 강약으로 볼 필요가 있음은 전술하였다. 이를 현토에도 적용하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연결어미처럼 보이지만 마침표 성격이 강한 것임에 분명한 토가 있으며, 종결어미처럼 보이지만 쉼표 성격이 농후한 토가 존재한다. 이런 사실을 바탕으로 연결어미와 종결어미를 쉼표와 마침표에 1:1 대응 시키는 경직된 고정관념을 지양하고, 현토의 연결어미도 休止의 강약을 표하는 약속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

표점가공이 간결성이나 문장의 구조를 한눈에 보여준다는 형태상의 측면에서 현토보다 나은 점이 인정된다. 또 오늘날은 표점으로 원문을 정리하는 시대이다. 그것은 교착어의 언어습관이 없는 국가의 이용자들에게도 맞는, 한문고전의 세계화 흐름에도 순행하는 방법이다. 다만 현토 연결어미의 쓰임에 대한 경직된 고정관념만 버린다면, 현토의 문장 이해가 표점작업의 수준 제고에 전혀 도움이 없지는 않으리라 생각한다. 이제 그 가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현토와 표점의 관계 시탐

이 장은 ‘현토는 과연 표점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이라는 분명한 목적성을 띠고 마련되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매우 명쾌하다.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 토가 달린 거의 모든 자리가 한문의 구두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토된 한문문장을 표점으로 옮긴다면 그렇지 않은 문장을 표점으로 옮기는 것보다 훨씬 힘이 덜 든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현토가 표점작업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충분히 증명된다.

예외는 있다. 주격조사 ‘이’가 붙는 자리, ‘以’, ‘與’, ‘使’ 등 몇몇 虛辭의 문법적 기능과 호응하는 토 ‘~으로’, ‘~와’ 등이 달린 자리는 구두의 자리가 아니다. 이러한 현토는 단지 원문의 특정 문장성분을 표시하거나 허사의 문법적 영향범위를 표시해주는 기능을 하므로 구두와 아무런 상관성이 없는 현토이다>(*예시1) 참조.) 따라서 이러한 예외적인 성격의 현토를 추출하여 정리해둔다면, 현토와 구두의 차이 때문에 표점에서 오류를 일으킬 우려는 현저히 줄어든다.

그렇다면 현토를 어떻게 활용해야 표점작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증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역시 문체적 지점은 구두 자리에 해당하는 현토이다.

다시 ‘~한대’와 ‘~(이)어늘’을 중심으로.

앞의 문제 제기에서 현토의 연결어미를 ‘休止의 강약’으로 이해하자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그에 대한 논의를 III장에 이어 다시 ‘~한대’와 ‘~어늘’을 가지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III장에서 논의한 두 현토의 의미와 용법을 정리하면 이렇다. ‘~한대’는 한 문장의 의미가 완결되는 자리에 쓰이며, 이후 모든 발화 상황의 배경이 된다. ‘~어늘’은 ‘~한대’ 보다 영향 범위가 좁고, 주로 토의 앞뒤 문장을 긴밀하게 연결시켜 준다.

이를 표점부호와 연결시켜 말하면 ‘~한대’는 고리점 성격이 강하며, ‘~어늘’은 고리점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반점 성격이 농후하다고 할 수 있다. 사서의 諺解에서 ‘~한대’ 토가 달린 것은 문장이 아무리 짧아도 현대 표점가공 서적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고리점으로 표하고 있다. 이는 ‘孟武伯問孝한대’, ‘子夏問孝한대’, ‘孟子見梁惠王한대’ 등을 비롯한 기본문형에서부터 복잡한 문형에까지 일관된다. 그에 비해 ‘~어늘’의 자리에는 고리점보다 반점이 달린 빈도가 더 많다. 이는 한문문장에 대한 현토와 표점의 이해가 상당히 일치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 a) 子華使於齊러니 冉子爲其母請粟한대 子曰 與之釜하라 請益한대 曰與之庾 하라하여시늘 冉子與之粟五秉한대 子曰 赤之適齊也에 乘肥馬하며…(雍也-3)
 a-1) 子華使於齊, 冉子爲其母請粟. 子曰: “與之釜.” 請益. 曰: “與之庾.” 冉子與之粟五秉. 子曰: “赤之適齊也, 乘肥馬, …(中華書局)

교정청 언해와 中華書局 표점본의 비교이다. 세 번의 ‘~한대’ 자리마다 정확히 고리점이 표시되어 있다.

다음은 ‘~한대’와 ‘어늘’이 섞인 경우이다.

- a) 顏淵死키늘 子哭之慟하신대 從者曰 子慟矣샤소이다(先進-9)
 a-1) 顏淵死, 子哭之慟. 從者曰: “子慟矣.”
 b) 葉公이 問孔子於子路어늘 子路不對한대 子曰 女奚不曰 其爲人也發憤忘食 하며 樂以忘憂하여 不知老之將至云爾오(述而-18)
 b-1) 葉公問孔子於子路, 子路不對. 子曰: “女奚不曰…(中華書局)

a)와 b) 모두 ‘한대’ 자리에는 고리점이, ‘어늘’ 자리에는 반점이 표시되어 있다. 현토의 용법과 의미를 명확히 알면 표점을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런데 빈도수가 많지 않기는 하지만 ‘한대’, ‘어늘’ 토의 자리에 달린 표점이 앞의 예와 다르게 된 경우도 있다.

- a) 陽貨欲見孔子어늘 孔子不見하신대 歸孔子豚이어늘 孔子時其亡(無)也而往拜之러시니 遇諸塗하사다(陽貨-1)
 a-1) 陽貨欲見孔子, 孔子不見, 歸孔子豚. 孔子時其亡也, 而往拜之. 遇諸塗.(中華書局)
 b) 子見南子하신대 子路不說이어늘 夫子矢之曰 予所否者인댄 天厭之, 天厭之시리라
 b-1) 子見南子, 子路不說. 夫子矢之曰: …(中華書局)

a)와 b) 모두 ‘한대’ 자리에는 반점이, ‘어늘’ 자리에는 고리점이 표시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이를 오류라고 할

것까지는 없다. 다만 따져볼 지점은 없지 않다. a)의 경우 사건 진행의 순차를 현토는 ‘孔子不見’까지를 발단으로 보고 그 이후를 전개로 보았다면, 중화서국의 표점은 ‘歸孔子豚’까지를 발단으로 보고 그 이후를 전개로 보았다. 그러나 자연스런 흐름으로 보자면 ‘歸孔子豚’는 새로운 국면의 시작이다. 주어 역시 다시 양화로 바뀌어 있다.

b)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子見南子’와 ‘子路不說’의 관계보다 ‘子路不說’과 ‘夫子矢之’가 더 긴밀해 보인다. ‘子見南子’는 이미 이전에 발생한 상황이고, ‘子路不說’과 ‘夫子矢之’는 동일한 장소 동일한 시간에 발생한 사건이기 쉽기 때문이다.

『논어』에서 이러한 형태의 문장에 의한 사건 서술은 적지 않다. III장의 논의에서 보인 “子入大廟”장의 예문도 같은 예이다. 그 문장에 ‘~한대’ 토의 자리에 가해진 중화서국의 표점은 고리점이다. 그 옛날의 실제 정황이 어떠한지는 오늘날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러나 현토의 상황 해석이 표점의 경우보다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며, 나아가 일관성도 한결 우위에 있다고 판단된다. 현토의 견해를 표점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될 수 있다.

a-2) 陽貨欲見孔子, 孔子不見, 歸孔子豚, 孔子時其亡也, 而往拜之。遇諸塗。

b-2) 子見南子, 子路不說, 夫子矢之曰: …

각각의 토에는 분명한 의미가 있고 쓰임에 일관된 규칙이 있다. 문장 분석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다. 구어적 관습이나 직관에 의한 임의적이고 무질서한 토씨 붙이기가 아니다. 따라서 현토에 담긴 약속과 규칙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표점에 대응시켜 반영한다면 현토는 표점가공에 매우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리라 예견된다.

3. 현토를 표점 작업에 제대로 활용하기 위한 전제

표점과 현토는 한문고전 정리에 각각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고전 정

리의 방법적 측면으로서 장단점을 비교하기 전에 선결되어야 할 전제 조건이 있다. 그것은 한문고전을 정리하는 연구자가 원문의 구두를 뗄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졌느냐 하는 것이다. 經書와 史書를 비롯한 기본서는 역대로 수많은 학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문장의 의미와 구두가 대체적으로 확정되었으며, 이미 중국에서 표점정리가 광범하게 이루어졌다. 우리에게 자체적으로 다시 표점 가공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현토의 도움을 받아 선행 표점 작업의 치명적인 결함을 도처에서 고쳐야 할 경우의 수는 현저히 적다.

역시 과제는 눈앞에 山積한 우리 고전들이다. 이 고전문헌들을 정리할 때 구두를 떼고 문장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역량이 없다면 현토로 정리하던 표점으로 정리하든 그러한 기술적, 방법적 요소는 무의미하다. 구두를 떼지 못하는 연구자가 어떻게 토를 달 수 있을 것이며, 단지 기호로만 남은 토가 무슨 수로 표점 정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 마찬가지로 구두를 떼지 못하는 연구자가 어떻게 원문에 표점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현토의 오류와 한계를 지적할 수 있을 것인가?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구두를 뗄 수 있는 역량, 즉 文理이다.

그렇다면 文理 함양의 방법으로써 현토와 표점의 효용성은 논의될 필요가 있다. 표점으로 정리된 문장을 학습하면서 한문의 문법과 문장구조를 익히는 것이 효과적이고 정확할 것인가? 현토된 문장을 학습하면서 한문의 문법과 문장구조를 익히는 것이 효과적이고 정확할 것인가?

선불리 단정하기는 어렵다. 중국 연구자, 한문과 語順이 비슷한 언어를 쓰는 나라의 연구자, 또는 교착어의 언어관습이 없는 나라의 연구자들에게는 표점으로 정리된 문장으로 학습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고 쉬울지도 모른다. 다만 한문과 어순이 완전히 다르고 교착어를 쓰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현토가 아무래도 익숙하고 효율적인 학습 효과가 있으리라 판단된다. 현토를 통한 학습 방법이 유구한 세월동안 전승된 사실이 그것을 반증한다. 검증된 방법을 왜 굳이 버릴 것인가? 한문고전을 정리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연구자 양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분명 현토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현토를 통한 한문 교육의 유용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무엇보다 현토의 의미와 용법의 연구 및 정리라는 과제가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번역과 표점에서 현토 활용의 유용성 검증’이라는 다소 긴 논증을 지나 이 지점에 와서 새삼스럽게 현토 연구의 중요성이 다시금 부각되는 것이다.

현토를 통한 교육은 구어적 관습이나 막연한 어감, 내지는 教授者의 직관이 아니라 연구되고 정리된 결과를 토대로 진행되어야 한다. 일관된 원리를 구명하여 체계적인 교육 과정 속에서 정확히 가르치고, 정확히 다는 훈련을 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현토는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지금 한문문장에 정확히 토를 달 수 있는 연구자가 많지 않은 것은 이 과정에 대한 문제 인식이 부족해서이며, 그에 따른 교육과 훈련의 부실이 근본 원인이다.

현토를 깊이 연구해 보지 않고, 토를 정확히 달 자신이 없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현토의 가치와 효용에 회의적 시각을 던진다.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그 가치를 의심하는 것은 당연하다. 현토 무용론은 학계의 이러한 현재적 상황에서 몸을 부풀리기 그만이다. 현토 활용에 대한 고민보다 연구에 대한 고심이 우선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토에도 한문고전 정리의 성격이 있음은 앞에서 말하였다. 따라서 토를 정확히 달 수 있는 사람은 구두를 정확히 떼어 표점으로 한문고전을 정리할 수 있는 역량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람에게 표점으로 정리하는 방법을 훈련시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이것이 가능해졌을 때, 현토의 유용성과 활용 문제가 비로소 의미 있게 논의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V. 맺는 말

본고는 번역과 표점에 과연 현토가 유용한가에 답을 얻기 위해 작성

되었다. 그에 접근하기 위해 현토의 성격과 기능을 정리하였고, 학계의 연구 현황을 통해 과제를 진단하였다. 그 결과 현토에 대한 기초적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가 노정되었다. 또 현토의 가치를 부각시켜 그 활용을 강조하는 주장에는 인상비평적인 측면이 있으며, 전통시대 학문에 대한 현토의 기여를 인정하기는 하지만 활용 가능성에 회의적 시각을 던진 주장은 주로 현토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왔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구두해법』의 설명을 실제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도 발견하였다. 이에 따라 성급한 활용 논의보다 현토 연구와 체계적 정리가 급선무라는 답을 얻었다.

연구와 정리의 필요성은 기초적이고 常用하는 현토의 의미와 용법에 대해 관련분야 연구자들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적 문제의식에서 접근하였다. 다만 지면상의 한계로, 빈도수가 많고 논란의 소지가 있는 ㅈ ‘~한대’와 ‘~이어늘’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둘은 의미와 용법이 매우 비슷해 보이지만 각각 나름의 일관된 규칙이 있었고, 그 규칙은 문장 구조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었다. 그리고 이 ㅈ들이 지닌 규칙의 의미를 반영한다면 한문고전 번역과 표점의 수준 제고에 기여가 없지 않으리라는 가능성이 예측되었다.

이에 따라 ‘~하니’, ‘~하여’, ‘~하고’ 등 다른 현토들도 용례를 조사하여 정리하면 그것이 구어적 관습에서 혼용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정보를 담고 일정한 규칙 아래 쓰였다는 결과를 얻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된다. 後考에서 이 문제들을 심화 追探하고자 한다.

이어 현토가 한문고전 번역과 표점의 수준 제고에 기여할 가능성은 탐지되었지만, 낯선 한문 문장을 대상으로 그 현토를 정확히 달 수 있는 학자가 많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였다. 그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현토 교육의 필요성을 또한 아울러 제기하였는데, 이 지점에서 정확한 현토 교육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현토 연구와 정리의 필요성을 다시 절감하였다.

본고는 현토의 현재적 활용 방법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작성되었고, 현토가 번역과 표점에 기여할 점이 결코 없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누차 정밀한 연구와 체계적 정리라는 선결 과제의 벽에 부딪혔다. 본고는 분명한 목적의식 아래 작성되었고, 또 한정적인 예이지만 구체적인 사례로 논증하였다. 그럼에도 단지 가능성만을 말하고 결론을 확인하지 못한 점, 혹은 같은 문제의 반복적 제기 등과 같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이는 물론 일차적으로는 논자의 개인적 역량 부족에서 빚어진 일이지만, 현토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리의 부재라는 현재적 한계와도 무관하지 않다.

본고에서 던진 몇몇 질문들은 성격상 성급히 속단하기도 이르고, 당장 답하기 어려운 것도 있다. 오직 제기한 문제인식에 상응하는 후속 연구에서 답을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여기서는 다만 이러한 문제인식을 던져 조금이나마 학계의 공감을 끌어내고자 한다.

<參考 文獻>

『四書今註今譯』, 臺灣商務印書局, 1775.

『四書章句集注』, 中華書局, 1983.

『論語今譯』, 齊魯書社, 2009.

김언중, 「한국고전적표점의 현황과 과제」, 『민족문화』 35, 한국고전번역원, 2010.

김윤경, 『조선문자급어학사』, 진학출판사, 1946.

남풍현, 「구결과 토」, 『국어학』 9, 국어학회, 1980.

——, 『국어사를 위한 구결연구』, 태학사, 1999.

박은희, 「한국 고전문헌의 표점 방식에 대한 시론」, 『역사와 담론』 53, 호서사학회, 2009.

——, 「한문번역의 측면에서 바라본 표점과 현토의 차이 : 고리점을 중심으로」, 『민족문화』 39, 한국고전번역원, 2012.

박종천, 「표점과 현토(구결)의 비교 분석」, 『민족문화』 35, 한국고전번역원, 2010.

백원철, 「중, 고교 한문교과서 문장의 현토와 해석에 관한 연구」, 『한문학보』 2,

우리한문학회, 2000.

서울대 동양사학연구실 역·管敏義 著, 『고급한문해석법』, 창작과 비평, 1994.
송병렬, 「현토 교육의 유용성과 吐의 문법적 성격」, 『한문교육연구』 13, 한국한문교육학회, 1999.

신영주, 「『韓文吐釋』에 나타난 尹根壽와 崔崑의 현토 담론에 관하여」, 『한문학보』 20, 우리한문학회, 2009.

심경호, 「조선전기의 註解本 간행과 문헌 가공에 대하여」, 『대동한문학』 20, 대동한문학회, 2004.

심재기, 「구결의 생성 및 변천에 대하여」, 『한국학보』 1, 일지사, 1975.

안병희, 『중세국어 구결의 연구』, 일지사, 1977.

윤용선, 「조선후기의 口訣 사용에 대한 고찰」, 『진단학보』 107, 진단학회, 2009.

이병혁, 「전통 한문 교육: 한문 현토를 중심으로」, 『한자한문교육』 6,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00.

이상하, 「한문학습 및 번역에 있어서 현토의 문제」, 『민족문화』 29, 한국고전번역원, 2006.

——, 「한문의 토와 표점의 상관관계」, 『고전번역연구』 3, 한국고전번역학회, 2012.

최 식, 「『句讀解法』, 한문의 구두와 懸吐, 口訣」, 『민족문화』 32, 한국고전번역원, 2008.

——, 「漢文讀法の 韓國的 특수성」, 『한자한문교육』 27, 한국한자한문교육학회, 2011.

최현배, 『고친 한글갈』, 정음사, 1961.

Abstract

*Matter of practical use of adding Korean endings to classical Chinese phrases
in Korean Chinese Classic Translation and Marking
- focused on ‘~handae(현대)’ and ‘~(i)aneul(이어늘)’ / Lee Gyu Pil**

This study discusses the relevance of adding Korean endings to classical Chinese phrases in Translation and Marking.

To this end, this study arranged the nature and function, and then diagnosed tasks through the present condition of researches. In the process, this study found that preliminary investigation has not been built about the meaning and usage in adding Korean endings to classical Chinese phrases, and this writing felt keenly the necessity for associated researches.

To Verify importance of the study on the meaning and usage in adding Korean endings to classical Chinese phrases, this study looked in ‘~handae(현대)’ and ‘~(i)aneul(이어늘)’ mainly. Because these are used frequently and open to dispute.

The two are seemed to be very similar. But consequently, this study found that the two have their own coherent rules respectively, and these rules have very important informations to understand sentence structure, So, if we know and reflect exactly the meanings of these rules, the level of Korean Chinese Classic Translation and Marking will go up.

Accordingly, if we investigate and arrange others, for example ‘~hani(하니)’, ‘~hayeo(하야)’, ‘~hago(하고)’, and so on, we will be able to found that those have certain informations and are used under certain rules.

The possibility of enhancing level in Korean Chinese Classic Translation and Marking is detected, to but this manuscript pointed out the reality that there

are not much scholars who add Korean endings to unfamiliar classical Chinese phrases exactly. Based on them, this study raised the necessity for systematic education in adding Korean endings to classical Chinese phrases. At this point, as precondition exact education, this study felt keenly the necessity for researches and arrangement.

【Key words】 Translation, Marking, Meaning and usage of adding Korean endings to classical Chinese phrases, Education of adding Korean endings to classical Chinese phrases, ‘~handae(현대)’ and ‘~(i)aneul(이어늘)’

* Daedong Institute of Korean Studies, Sungkyunkwan Univ. / gdfeel@hanmail.net

투고일 : 4월 21일, 심사일 : 5월 19일, 게재확정일 : 6월 8일